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5,

요한복음 2:13-3:36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5부, 예수님의 예루살렘 초기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13-3:36.

요한복음에 관한 다섯 번째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책의 소개와 첫 두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후 첫 번째 예루살렘 여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서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번 장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요한복음 2장 12절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와 유대 사이를 전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12절),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다가오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더 나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성전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금융 거래가 이루어져야 했고, 외국인 방문객으로부터 돈을 바꿔야 하고, 희생 동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꼭 필요한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의 위치나 부정직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방식이 문제였고, 우리는 내러티브 여기저기에서 이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자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옥을 먹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훔어버리고, 상을 얹어 버렸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고 여기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구약성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구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의 여파로 나온 반응으로 인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인 질문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 모든 일에 대한 당신의 권세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이시겠나이까 즉, 여기 우리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할 권리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모호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물론 성전을 짓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헤롯은 그 집을 리모델링하고 개조하고 확장하고 기반을 넓히고 건물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20절에 보면 46년이 지나면 너희가 3일 만에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편집 논평을 보면 그분이 자신의 몸인 성전에 관해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불투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가려진 이 말씀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결국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야기와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만족스럽지 못한 후, 여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니고데모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나올 내용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물론 요한은 개별적인 표징에 관해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18절에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았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를 다소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스어로 동사 *pisteuo*를 사용한 약간의 말장난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말하자면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류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각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표적을 보는 것에 기초한 믿음이 어떤 면에서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하거나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하며 구원하는 믿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첫 번째 힌트를 요한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분명히 유대인을 다스리는 교사로 묘사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 지역 사회에서 명성과 지위를 가진 사람, 예수께서 나중에 3장에서 말씀하신 사람, 12절인가요? 아니요, 10절,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분명히 큰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볼 때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임에 틀림없다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의 표징 때문에 장 끝에서 니고데모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2. 그는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또는 당신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는 당신의 신뢰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이러한 반복적인 대화가 있는데, 이는 서로를 매우 격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서로를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점에서, 16절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편집자의 논평이지, 정확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NIV 성경에는 빨간 글자가 15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것에 대해 궁금해했고 빨간 글자가 13절에서 멈춰야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께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높여지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알았어, 이제 알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니고데모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곳으로 떠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니고데모는 그냥 방치되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7장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 19장에서 세 번째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요한의 편집 논평은 아마도 21절까지 이어지며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인터뷰를 이해하는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자니 이는 빛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음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밤에 예수께 나아온 니고데모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임이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은유적인 언어를 보게 됩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21절). 요한과 같은 책에서 우리는 21절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고 말한 것의 빛은 실례합니다. 21절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암시입니다.

모세와 예수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 대해 다시 프롤로그를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모세의 추종자였으며 모세의 매우 저명한 추종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토라가 모세를 통해 온 것처럼 은혜와 진리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니고데모에 대해 더 나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이 설명되어 있는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말한 내용을 이미 1장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의 22절부터 36절까지를 이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살림 근처 에논에서 세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곳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할 수 없는 장소였으며 요한의 제자들(25절)과 일부 유대인들에 대한 의식적 씻음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의 교회가 당신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뻔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요한은 27절에서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것만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그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지 않고, 신랑이 결혼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신랑의 친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30절에서 예수님은 더 크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31절 이하의 나머지 부분이 세례 요한의 말인지, 아니면 다시 설명하는 편집자의 말인지 궁금합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가졌던 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과 마찬가지로 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인터뷰를 기술하고, 16장부터 21장은 그에 대한 편집자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병행하여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이 유대인들의 인터뷰가 될 것이고, 31절 이하에는 이에 대한 주석의 저자인 전도자 요한의 인터뷰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기서 보아야 할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인 전도자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모든 것 위에 계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으로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는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3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잘린 진술이며, 우리는 몇 가지 선행 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NIV는 여기서 약간 해석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가 영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IV는 이것을 아버지께서 성령을 무한히 주신다고 해석했습니다.

35절,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느니라. 주님은 아들을 영생으로 믿으셨습니다. 아들을 저버리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35절과 36절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방식은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3장의 1절부터 21절까지, 3장은 22절부터 36절까지,

3장, 1절부터 20절은 3장, 22절부터 30절, 3절과 일치하는 두 개의 장을 갖게 됩니다. 16~21장, 3장, 31장부터 36장과 일치합니다. 이제 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으니, 당시 예루살렘이 어땠을지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문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지역 어딘가에서 환전상과 그 모든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성전 밖의 거리에서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날에도 계단이 보존되어 있는 남서쪽이나 남쪽을 따라 사람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나에게서는 이것이 텍스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사진을 보면 대략 서쪽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기에는 유명한 서쪽 벽, 헤롯 대왕이 건축한 웅벽, 오늘날 기도의 장소로 알려진 통곡의 벽, 많은 관광객이 참석하는 통곡의 벽이 있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매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원에 대한 남쪽 노출과 현재 사원 남쪽 끝에 있는 알아크사 모스크 아래에 있던 사원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돈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희생 동물을 팔고 있는지를 여기 아래 이 지역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알게 되겠지만, 아마도 거리 수준의 노점의 잔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을 남쪽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우리가 방금 말한 계단이 있을 것이고, 지하로 올라가서 이방인의 뜰 안으로 튀어나왔을 성전 입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그 지역에서 본 것만큼 정확한 재구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북서쪽에서 북동쪽, 즉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으로 가는 남쪽 출입구는 여기 아래에 있고 통곡의 벽은 여기 성전 울타리 반대편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이자 가장 성스러운 곳인 성전을 작가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 뜰은 다른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요, 여자의 뜰, 남자의 뜰이요, 궁극적으로 오직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외부 지역이나 아마도 바깥 거리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피해자들을 파는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4년에 사원의 남서쪽 모퉁이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벽을 지탱하기 위해 지어진 이런 종류의 웅벽을 볼 수 있거나 단순히 상점을 둘러싸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 속에 있는 바위에 박혀 있는 재를 볼 수 있습니다. 거리의 재 트럭은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위에서 아래로 던진 돌에 의해 부서졌고, 오늘날에도 여기에 있었던 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본문에 언급된 구매 및 판매가 발생한 곳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가 인용하는 참조 세계가 아닌 텍스트로서의 텍스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들의 문학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지만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을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3장 1-15절에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인터뷰 이야기에 이어 3장 16-21절에 있는 편집자의 설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집자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기본적으로 맏소사, 내가 잘못된 슬라이드를 보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연대기와 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관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구별하여 그가 여기에 묘사된 대로 그의 사역 초기에 그것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공관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행하였는가? 그래서 그는 공관복음에서와 같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처럼 두 번 일찍 그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한 번만 했습니까? 그가 한 번만 그렇게 했다면 요한은 주제적 요점을 일찍 넣어서 역사적 연대기를 재배열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관복음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예수께서 아마도 그의 사역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것이며 끝까지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반복해서 여행하신 것은 예수께서 사역 초기부터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문제를 겪었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까지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사역의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성전을 청소했는가? 예수께서 단지 그곳을 깨끗이 하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괜찮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영적으로 되어 더욱 정직해지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일종의 약간의 개혁 운동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성전의 전체 파괴를 묘사하기 위해 거기에 계셨고 성전의 환전상들과 작은 상점들을 무너뜨리심으로써 본질적으로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작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AD 70년에 그들은 전체 구조를 허물어버릴 것입니다.

내 생각에 첫 번째 보기는 너무 가볍고 두 번째 보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초반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몸의 성전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힌트를 보면,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고 나중에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방식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곳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가 오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므로 성전을 깨끗이 하심으로써 돈 바꾸는 자들을 분명히 쫓아냄으로써 예수께서는 그 행위에 스며든 부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행위 자체는 꼭 필요한 행위였으나 분명히 비윤리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이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는 성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3장에 도달하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구약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암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다면 2장의 구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16절에는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스가랴 14장 21절과 또한 시편 69절 9절에 대한 암시로 보이는 17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의 즉각적인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다른 텍스트들이며, 그런 다음 이 텍스트들이 여기 신약성서에서 어떻게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는지 주목하고 두 텍스트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추가 연구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책에 대한 개요만 제공하려고 하므로 필요에 따라 이를 수행하도록 시청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뛰어넘고 있던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안타깝게도 이제 이 장을 읽을 때 우리는 실제로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빨간 글자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즉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레이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레이터의 논평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로 보고 그 다음 16절부터 21절을 편집 논평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인 전도자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에게 믿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때때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것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심판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믿음과 불신앙의 구원과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역사 속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따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내러티브와 편집자의 논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장의 두 번째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박해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자신이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 사람, 즉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한과 정결케 됨과 예수와 비교한 요한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이 논의는 31절부터 36절까지의 편집 논평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며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물고 예수가 바로 그 분이신 것에 대한 논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으로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가능하게 된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신다는 암시적인 삼위일체 신학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흐름을 요한복음 3장 전반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방금 살펴본 3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6 ~ 21 편집자 의견. 다시 돌아가서 해당 부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세 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이 선생이시며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많은 말이 사실이었지만, 속담에 따르면 그는 희미한 칭찬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고 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최초의 오해는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니고데모는 네가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의 자궁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금 조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은 원하는 대로 분다.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연관시키셨고 니고데모는 그것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간단히 말하는 9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여기서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대답하십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태어나는 것, 물과 같은 용어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것을 얻으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바로 예수 외에는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급된 예수의 전 존재는 프롤로그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지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며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친숙했을 구약의 사건을 암시하면서 들려야 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관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예수와 니고데모 사이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니고데모는 그가 왔을 때만큼이나 어리둥절해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했고, 그가 예수님께 한 말 하나하나가 그를 더욱 문제와 오해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왜 굳이 가려고 했는지 생각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영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산헤드린 회의에서 그가 말한 내용을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 비디오 시리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석적 질문들로 넘어갑니다.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많은 성경 학자들이 본문이 원래 작성되었을 때 니고데모 자신이 했던 것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자연적 탄생과 영적인 탄생을 모두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자연출생을 말하는데, 출산담에서 흔히 듣던 양수가 터져 나온 뒤, 신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내 생각에 이 설명의 문제는 물에서 태어났다는 표현이 내가 아는 한 자연적인 육체적 탄생을 가리키는 고대 자료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표현이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출산이 임박한 여성의 양수가 터진다고 말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다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상당히 무해한 해석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동어반복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려면 한 번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당신이 흔히 듣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물 세례와 기독교 세례와 연관시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인의 세례에 관해 알기를 기대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서 유대교에서 정결 의식에 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예수로부터 알 것으로 예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제2성전 유대교와 그들이 의식적 순결을 위해 성경에 추가한 다양한 관습과 전통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아마도 제사장의 순결에 관한 많은 구약의 전통을 받아들여 그것을 바리새인인 자신에게 적용했을 것이며, 아마도 마태복음 15장에 언급된 것처럼 식사 전에 추가로 씻는 일까지 했을 것입니다. 물의 의식과 순결, 그리고 적어도 의식의 순결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가 그것을 죄로 인한 윤리적 위반으로부터의 실제 정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했는지 여부는 아마도 또 다른 질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물 세례가 아니라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에게 물 정화에 대해 생각하게 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물 속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요한의 정화에 대해 생각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범위를 너무 좁혀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역과 성령 안의 물을 연관지어 자세히 말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일부 구절에 비추어 물 정화와 물 정화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이사야 44장 3절부터 5절과 같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고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것은 언뜻 보면 목마른 땅에 물을 주며, 나의 영이 네 자손에게 흐르고, 마른 땅에

흐르고, 나의 축복이 네 자손에게 있다는 시적 평행법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거기에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종말론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묘사하는 방법이고,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풀밭의 풀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초원의 풀과 포플러 나무와 같은 비유를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손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것입니다.

비슷한 본문이 에스겔 36장인데, 아마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에 더 가까운 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만국 중에서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말이 되네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게서 정결케 하리라.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나는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단순히 당신에게 새로운 태도나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 새로운 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넣어 너희를 감동시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법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적 전통이라면, 그는 니고데모가 세례 요한과 예수 자신의 사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과 연관시킬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 그러므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그것을 물의 의식을 연결하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영적인 갱신을 묘사하는 비유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본문과 연관시키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에게 새 영을 넣어 주는 것, 여기에서도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단지 세례에 관해 말씀하셨다거나 영적인 탄생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아마도 물로 태어난다는 표현에 더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즉 영으로 난다는 말은 물마저도 영으로 난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개의 별도 개체가 없지만 첫 번째는 두 번째에 대한 참조입니다. 둘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또 다른 우연한 질문은 여기에서 기독교론적 관심에 있어 중요하며, 누가 성령을 무한히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한 없이.

이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을 아무런 제한 없이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1장과 연결되며,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와 키워드와 머물고 머무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 그러므로 성령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물기 위해 예수님에게 왔다는 사실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 3장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4절은 35절이 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넓게 보면,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는 이 본문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을 주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과 같은 나중의 본문과 연결시키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이해하는 길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단계적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오시는 위로자, 옹호자, 돕는 자에 대해 말하는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움 없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셨으므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20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보내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3장의 관계 문제와 신학적 관심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지만,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그것의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성격이라고 부를 만한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 사업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도록 초대받았는지를 주목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대리자로 보내시는 방식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포스텔로(apostello)라는 동사가 있고 그리스어로 펴포(pempo)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버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번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고대와 현대 모두에서 법적 용어로 아버지의 대리인이십니다. 입양 절차, 주택 구입, 건강 관리 가이드 등의 과정에서 누군가를 귀하의 대리인으로 승인한 경우, 그 사람은 귀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귀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랍비 언어에서 샤리아크, 대리인,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능력을 받아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오십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밝히시듯이 그분이 하시려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지 그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단순히 예수님을 그의 대리인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무장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이 예수께 임하고(1.32.33), 그 위에 머무른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또는 무제한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요한의 신학에 관한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클레멘트가 요한을 영적인 복음으로 언급하기를 원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보내진 성령의 언어는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잡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준비시켰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니라.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 흐릅니다. 그 다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예수께서 떠나시지만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성령을 받을 열두 사도를 통해 교회가 예수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도우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의 대리자로 보내셨듯이, 그들을 아버지의 대리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을 세상에, 세상에 나의 대리자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어떤 유형의 사람을 상징합니까? 분명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에 대해 뭔가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니고데모의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는데, 이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훨씬 더 극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시대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하실 때, 말하자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장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내 생각에 이 사실은 7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 실제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가 메시아닉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0-52절에서 니고데모는 그에 관해 토론하는 동안, 우리가 그를 정죄하기 전에 적어도 그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장사되실 때가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19세기에 연결되는 사람과도 관련이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비밀리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다소 슬프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는 정확히 본문의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을 믿었던 신자들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공개적 헌신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지 않았습니다.

1242년에 그들은 회당에서의 지위에 대해 염려했다고 합니다. 19장 38절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고 빌라도에게서 시체를 받고 빌라도에게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허락한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적인 행동으로 그들은 그 시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철저하게 그들의 위장을 폭로했을 것이고, 적어도 그들은 시체를 돌보는 선한 유대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2성전 유대교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용어가 현재 나에게 빠져 있는 외경 중 하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염려했고, 어떤 의미에서든 그들의 영성이 양심적인 제2성전 유대인들이 육체를 돌보도록 이끌었거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시신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7장과 19장의 후반 구절에서도 니고데모의 묘사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결국 적어도 19세 무렵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니고데모와 그와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징후는 확실히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도 확실히 매력적이었고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았을 정도로, 그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호기심을 쏟았습니까? 아니면 너무 소심해서 그에게 공개적인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관련된 니고데모에 관해 내가 추측하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예수에 관한 정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십니다.

의심할 바 없이 니고데모가 옳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질문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고대 인물처럼 그분에 대해 호기심이 있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생각이 어땠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로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가르침이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통해 우리를 내면에서 밖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하기를 반드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구약에서 물로 표현되는 깨끗함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5부, 예수님의 예루살렘 초기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13-3:36.